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불교계의 '브리태니커 사전' 만드는 것이 꿈  
불교를 제대로 아는 전문인력 없어 아쉬워

“부끄럽지 않는 책 만들 터”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서점에서 '만들어진' 책만 접한다. 책에 대한 관심은 제목, 저자나 혹은 역자까지다. 탄생하기까지 겪은 모든 과정을 책은 속삭이고 있지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기, 책 중에서도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불교관련 서적을 '불서(佛書)'라고 한다. 불자들이 불서를 많이 읽지 않아 탄식하면서도 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한 권의 불서가 어디서,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독자층도 형성되지 않은 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는 등불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청송빌딩 3층. 도서출판 운주사가 위치한 곳이다. 1월 8일, '운주사' 이름이 걸린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시열 사장이 반긴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 벽 가득히 꽂혀 있는 불서들. 들어서서 순간, '아 이곳이 출판사구나' 싶다.

운주사는 총판과 출판사로 나눠져 있다. 원래 함께 있었지만 2001년부터 분리. 출판쪽은 김 사장이 전담하고 있다.

김 사장이 처음으로 운주사에서 책을 만든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갖 사회에 뛰어들던 1991년이었다.

“가장 처음 만든 책은 <승업경 구입문>이었어요. 만들면서 비로소 부처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책 만드는 것이 재밌었고,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게 됐지요.”

김 사장의 책상에는 항상 가편집 상태인 원고와 놓여 있다. 원고와 제대로 나왔는지, 독자들에게 접근성은 갖췄는지, 틀린 글자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은 정독한다. 불법(佛法)을 전하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여나 왜곡시키지는 않

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다. 현재 운주사에는 김 사장과 복디자이너 박혜정씨가 함께 일하고 있다.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기획자, 편집자 등이 필요한데 김 사장이 출판사의 대표면서 기획, 편집은 물론 교정·교열까지 맡고 있다.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

“안정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규모를 키울 수는 없어요. 불교출판에서는 '기획'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 두 명이 일하는 직장이지만 운주사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지녔다. 지금 '어렵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불교계 출판 시장에서 1년에 15종 이상 불서를 만들어내는 출판사를 꾸려가기가 어디 쉬운 일일까. 그렇게 꾸준히 만들어 낸 책 250여권이 바로 운주사의 자산이다. IMF 한 파가 불어닥쳤을 때도 운주사는 기죽지 않았다. 그것이 도서출판 운주사의 신뢰도로 이어졌을 터다.

운주사의 책들을 꼭 살펴보니 실용과 학습, 이론을 넘나든다. 김 사장은 “큰 범주에서 '선(禪)'을 다루는 책을 만들고 있고 사회에서도 실용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굳이 어떤 것만 하겠다고 구분짓지는 않는다”

며 “꽤든 균형이 맞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출판사에서 낸 책들은 모두 지식과 같다. 그래도 출판인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책은 있기에 마련. 김 사장은 행화를 다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풀다>(김영래 저),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행화>(김의식 저) 두 권을 서가에서 꺼내 보여준다. 이 책들은 일반인문도서 코너에서도 꽤 유명했고 학교 교재로도 쓰일 정도였다. 김 사장의 입가에 흐트한 웃음이 흐른다. 이것이 출판인의 자부심일 것이다.

운주사에서는 현재 발행 스님의 <부부나의 노래>를 팔냈고 <교과서 속 불교이야기>를 추스르고 있다. 올해 김 사장의 의욕을 가지고 만드는 도서 목록 중 유독 <대지도론>이 눈에 띈다. 현재 작업 중이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라 올해 안에 마무리 될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태. 다소 힘든 작업이 예상되지만 <대지도론>의 완역본을 세상에 제대로 퍼낸다는 것이 김 사장의 계획이다.

운주사에서 김 사장이 진짜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일까.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문서'라 답한다. 소책자처럼 여러 권의 입문서



김시열 사장(왼쪽)과 디자이너 박혜정씨가 새로운 책의 표지를 검토하고 있다.

를 만들어 사찰을 찾을 때 궁금한 부분을 찾아 읽고 갈 수 있는, 불교계의 '브리태니커 사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불교에 관심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질 갖고 있을만한, 소장 가치가 있는 입문서.

요즘 김 사장의 고민을 묻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는다. 끝 쓰는 필진도, 교정교열자도 불교에 대해 알아야 제대로 된 불서를 만들지 않

겠냐는 것이다.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운주사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일당 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인문학적 불교 서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불교도 결국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독자들이 책 산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운주사 대표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1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2007
2	비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2007
3	중국의 불교문화	차차석	2007
4	붓다로부터 배우는 다이어트의 지혜	박용길역	2007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2006
6	조선불교신론	한운운	2007
7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2007
8	한국불교사상	서윤길	2007
9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해철	2007
10	황필호, 달라이라마를 만나다	황필호	2007
11	선오	전재강	2006
12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풀다	김영래	2004
13	왕생론주 서설	태원	2004
14	금강경 이야기	무비	2003
15	마음부자	자원	2003
16	에세이 불교철학	이병욱	2003
17	불자가 꼭 읽어야 할 기본경전	법성 역	1999
18	(만화)부처님 전생이야기	정수일	2004
19	(만화)성철 큰 스님	임기준	1994
20	선학총서	김진우 역	2002

### 내 인생의 불서 한권

불자들의 삶에 불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한권의 불서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영향이 크던 작던 불서는 불자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든다. 내 인생의 불서 한권에서는 불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거나 불서에서 큰 가르침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나'라는 이상 벗어나면 괴로움 없어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금강경>이 신앙의 전부고 스승이며 부처다. '내 인생의 불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청탁 받았을 때 <금강경>보다 더 내 인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책이 있는가 반문해 봤다. <금강경>을 독송해 온지도 40여년. 결국 내 인생의 불서는 <금강경>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이집에 고백할 것은 처음 <금강경>을 읽었을 때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덕 높은 분으로부터 <금강경> 강설을 들었고 확실한 뜻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내 나름대로 뜻을 새기게 됐다.

<금강경>은 불교의 근본 경전이어서 그런지 수많은 판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꼭야 보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금강경>은 아마도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불광, 1994가 아닐까 한다.

나의 경우,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을 읽으면서 특히 이상(俄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이 네 가지 상은 서로 뿌리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번뇌의 파장을 이어 나간다고 한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상에 끊임없이 전착해 있는 스스로를 보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은 그야말로 험준 공부처다. 그때마다 동요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깨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아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간다.

다음으로 크게 교훈되는 바는 '응무소주(應無所住)'다. 마음이란 어느 때 어느 곳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무소주(應無所住) 行於布施(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베풀을 행했다더라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더 이상의 수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상에서 벗어나고 머무는 바 없다면 견성할 수 있다고 <금강경>은 가르친다.

또 <금강경> 4구제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범소유상(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즉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계승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부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이런 원리들이 내 삶 전반에 스며들면서 얼마나 향기롭게 됐는가, 새삼 놀라곤 한다. <금강경>을 몰랐던 시절에는 쫓기듯 살았다. 쫓긴다는 것은 마음자리를 잡지 않거나 어딘가에 머무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러던 내가 <금강경>의 뜻을 새기고부터는 '응무소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됐다. 얼마나 큰 복인가. 내 삶도 여유로워지고 중앙신도회라는 조직에서 불법 홍보에 힘쓰고 있으니 더 무엇 바랄까.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으로 의미를 다지고 다시 한 번 삶을 돌아보는 여유. 불자가 때문에, 불서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싶다. 손산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삼일부회장

처음 염불땀 내용 전혀 이해 못해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공부 쉬워

### 생명에 에너지를 균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용 요기마을

## 민속죽염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제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원 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의 자기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라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연말연시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서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가 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영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록>과 <바로보인 선문영송> (바로보인 전통록)과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 무 료 개 방

### 황토와 산야초 (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흥행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필집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중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 토 사」 라고 치세요!

무보시로 기도하실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 토 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반곡리 356-3번지  
중무소 전화 : 033)343-0103

###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 한글 한문 (경음) 불교 상용의 의식집

####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써 염불을 하면 자동적(의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 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참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 <구 성>

- 제 1권:예강·각청편 • 제 2권:천도·시사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배송비 포함)

<문의> 전화 031)448-5065 / 핸드폰 011-277-8024  
(동협: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